

수령의 령도는 혁명전사의 영생실현의 근본담보

허 광 섭

수령의 따뜻한 손길에 의하여 혁명의 길에 자기의 더운 피를 아낌없이 바친 혁명전사들의 값높고 보람있는 삶은 당과 혁명, 조국과 인민, 후대들의 추억속에 영생하는 삶으로 빛을 뿌리게 된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수령은 전사와 인민에게 가장 고귀한 정치적생명을 안겨주고 그들이 성스러운 혁명의 한길에서 영생하도록 이끌어주며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생활을 마음껏 누릴수 있도록 따스히 보살펴준다.》(《김정일선집》 증보판 제16권 214페이지)

자주성을 위한 혁명투쟁에 나선 사람들의 영생은 사회정치적생명의 영생이며 그것은 전적으로 수령의 령도에 의하여 담보된다.

수령의 령도가 혁명전사의 영생실현의 근본담보로 되는것은 무엇보다먼저 수령의 자애로운 손길에 의해서만 혁명전사들이 발휘한 숭고한 혁명정신과 투쟁공적이 영원히 빛나고 그들이 집단과 후대들의 존경과 사랑을 받을수 있기때문이다.

수령의 품은 혁명전사들에게 영생하는 생명인 사회정치적생명을 안겨주고 보살펴주는 자애로운 아버지의 품일뿐아니라 혁명전사들이 떠나간 다음에도 그들이 지니었던 사회정치적생명이 영원히 빛날수 있게 온갖 사랑을 다 돌려주는 영생의 품이다.

수령은 비범한 사상리론적예지와 탁월한 령도력을 지닌 위인일뿐아니라 열렬한 인간애와 동지적사랑을 천품으로 지닌 숭고한 도덕의리의 최고화신이다.

수령의 자애로운 손길에 의하여 우선 혁명전사들이 지니었던 숭고한 혁명정신과 투쟁공적이 영원히 빛을 뿌리게 된다.

혁명전사의 영생하는 삶은 무엇보다도 생전에 그가 지니었던 숭고한 혁명정신과 이룩한 공적이 사회정치적생명체의 승리적전진을 힘있게 추동하는 원천으로, 밑천으로 되어 영원히 빛을 뿌리고있는데서 나타난다.

혁명전사의 가장 귀중한 생명인 사회정치적생명의 영생은 자기의 모체인 사회정치적집단, 사회정치적생명체와 직접적으로 이어져있다. 사회정치적집단이 승승장구하면 집단을 위하여 자기의 모든것을 다 바친 사람들의 이름과 사회정치적존엄은 집단과 후대들의 기억속에 그대로 남아 빛날수 있다.

거창한 사회개조와 자연개조를 동반하는 혁명과 건설은 당과 수령의 두리에 군대와 인민이 하나로 굳게 뭉친 사회정치적집단에 의하여 성과적으로 진척될수 있으며 이러한 혁명의 주체, 사회정치적생명체의 강화발전은 일정한 사상정신적 및 물질적재부를 필요로 한다. 혁명의 초행길을 피로써 개척한 선행세대들이 물려준 사상정신적 및 물질적재부는 사회정치적생명체의 영원한 강화발전을 위한 귀중한 유산이다.

혁명하는 사람이 당과 혁명, 조국과 인민을 위하여 남길수 있는 유산중의 유산은 사상정신적유산이다. 사상정신적유산은 집단과 후대들로 하여금 전세대들의 념과 정신을 그대로 이어받아 그 어떤 시련과 난관도 꺾듯이 이겨내면서 혁명과 건설을 줄기차게 전진시켜나갈수 있게 하는 원천이고 추동력이다.

그렇다고 하여 혁명전사들이 남겨놓은 사상정신적유산이 저절로 사회정치적생명체의

영원한 강화발전을 떠미는 원천으로 되게 된다는것은 아니다. 성스러운 혁명의 길에서 혁명전사들이 지니었던 숭고한 혁명정신과 그들이 이룩한 투쟁공적은 다름아닌 혁명전사들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과 뜨거운 사랑을 지닌 탁월한 수령에 의하여 대를 이어 혁명과 건설을 추동하는 영원한 혁명정신과 공적으로 남아 빛나게 된다.

수령은 혁명의 운명에 대한 숭고한 사명감으로부터 혁명의 1세대들이 발휘한 혁명정신과 공적을 혁명의 종국적승리를 이룩하기 위한 가장 귀중한 혁명의 재보로, 당과 혁명의 대를 곳곳이 이어주는 명맥으로 여기고 그것을 집단과 후대들이 따라배우도록 하기 위한 사업을 현명하게 령도한다. 수령의 옳바른 령도에 의하여 선행세대들이 지니었던 혁명정신은 집단과 후대들이 따라배우고 구현해야 할 위대한 혁명정신으로, 시대정신으로 승화되고 당과 혁명의 승리적전진을 힘있게 떠밀어주는 사상정신적원천으로 되게 된다.

수령은 혁명의 배신자, 변절자들이 전세대들의 혁명정신을 말살하고 온갖 오가잡탕을 다 끌어들여 그 순결성을 흐리게 할 때에도 원칙적인 투쟁을 힘있게 벌려 혁명전사들이 지니었던 숭고한 혁명정신을 후대들이 따라배우도록 이끌어준다.

이처럼 혁명전사들에 대한 수령의 숭고한 도덕의리와 사랑에 의하여 그들의 숭고한 혁명정신과 공적은 승리적으로 전진하는 사회정치적생명체와 더불어 영원히 남아 빛나게 되며 당과 혁명, 조국과 인민을 위한 길에서 청춘도 생명도 다 바친 혁명전사들의 삶은 오늘도 래일도 영원히 살아 빛나게 된다.

오늘 최후승리를 위한 총공격전이 벌어지고있는 사회주의강성국가건설의 모든 전구들에는 백두의 혁명정신, 백두의 칼바람정신이 세차게 휘몰아치고있다. 혁명의 초행길을 피로써 헤쳐온 항일혁명선렬들이 발휘한 완강한 공격정신, 백절불굴의 혁명정신은 위대한 아버지의 품, 수령의 품속에서 조국과 혁명을 힘있게 떠미는 위력한 사상정신적재보, 원천으로 되여 영원히 빛나고있다.

수령의 자애로운 손길에 의하여 혁명전사들이 집단과 후대들의 존경과 사랑속에 영생하게 된다.

사회정치적생명의 영생은 집단과 후대들의 영원한 존경과 사랑으로도 나타난다.

수령은 숭고한 도덕의리를 천품으로 지니고 혁명의 길에서 자기의 모든것을 다 바치고 떠나간 혁명전사들을 잊지 못해하며 집단과 후대들이 그들을 혁명선배로 존경하고 내세울뿐아니라 그들의 념원을 현실로 꽃피우기 위한 혁명과 건설을 현명하게 령도한다.

수령은 후대들이 혁명선렬들의 사상정신세계를 적극 따라배우도록 하는 한편 그들이 나서자라고 배우며 일한 고향과 학교, 공장과 농장, 인민군부대들을 그들의 이름으로 명명하고 그들의 업적을 널리 소개선전하도록 한다.

수령은 떠나간 혁명전사들의 유자녀들을 혁명의 대를 곳곳이 이어나가도록 온갖 사랑과 믿음을 다 안겨주며 혁명선렬들의 념원대로 그 어떤 원쑤도 범접 못하며 전체 인민이 참다운 정치적권리와 존엄을 지니고 자유롭고 행복한 생활을 마음껏 누리는 사회주의강성국가를 건설하기 위한 투쟁도 정력적으로 령도한다.

항일혁명투사들과 조국해방전쟁시기의 영웅들을 비롯한 혁명의 1세, 2세들의 대부분은 지금 우리곁에 없다. 그러나 우리 군대와 인민은 위대한 수령님들과 경애하는 원수님의 자애로운 손길에 의하여 훌륭히 꾸려진 혁명렬사릉과 조국해방전쟁참전렬사묘, 애국렬사릉들을 끊임없이 찾아 혁명선배들에게 경의를 드리고있으며 그들의 념원을 이 강산에

하루빨리 펼쳐놓기 위한 벽찬 투쟁에 자기의 모든것을 다 바쳐나가고있다.

강성국가건설의 여러 전구들에서 세차게 펴터이는 붉은 기발은 혁명의 길에 자기의 모든것을 다 바친 혁명가들의 생은 끝나지 않았으며 오늘도 래일도 영원하다는 삶의 진리를 천만군민의 심장속에 깊이 새겨주고있다.

수령의 령도가 혁명전사의 영생실현의 근본담보로 되는것은 다음으로 수령의 령도에 의해서만 사회정치적생명체가 영원히 강화발전되고 사람들이 혁명적신념과 의리를 지닌 참다운 혁명가로 자라날수 있기때문이다.

혁명전사의 영생은 사회정치적생명의 모체인 사회정치적생명체가 영원히 강화발전되고 혁명하는 사람들이 혁명적신념과 의리를 지니고 당과 수령, 조국과 인민을 위하여 자기의 모든것을 다 바쳐 헌신적으로 투쟁해나갈 때 실현될수 있다. 혁명전사의 영생실현에서 필수적으로 나서는 이 모든 요인들의 형성과 발전도 수령의 옳바른 령도를 떠나서 생각할수 없다.

수령의 옳바른 령도에 의하여 우선 사회정치적생명체가 영생하는 생명력을 지닌 사회정치적집단으로 강화발전되게 된다.

사회정치적생명은 집단과 더불어 영원한 생명인것만큼 그 모체인 자주적인 사회정치적집단의 영원성정도에 따라 그의 영생도 좌우되게 된다.

사회정치적생명의 모체로서의 사회정치적집단은 수령, 당, 군대와 인민의 통일체인 사회정치적생명체이며 사회정치적생명체의 영원한 발전을 담보하는 영생하는 생명력은 수령의 령도에 의하여 확고히 담보되게 된다.

일정한 사회정치적집단의 생명력은 내세운 활동목적과 그것을 실현할수 있는 힘에 의하여 좌우된다. 집단은 사람들이 자기의 일정한 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목적의식적으로 결합된 결합체인것만큼 집단이 영원히 존재하자면 집단활동의 근본목적이 숭고하고 원대한것으로 되어야 하며 그 목적을 실현할수 있는 위력한 힘을 지니고있어야 한다. 아무리 높고 원대한 목적을 내세운 집단이라고 하여도 그것을 실현할수 있는 능력이 없으면 집단은 사분오열되게 되며 종당에는 사멸되고만다.

사회정치적생명체의 영원한 생명력은 수령에 의하여 마련되고 강화발전되게 된다.

수령은 인민대중을 묶어세워 강유력한 정치적력량으로 꾸려나가며 세련된 령도술로 인민대중의 자주위업을 실현하기 위한 사회정치적생명체의 활동을 승리로 조직동원한다. 고매한 인민적품모를 지니고 군대와 인민에게 온갖 사랑과 믿음을 다 안겨주는 수령에 의하여 사회정치적생명체의 통일단결은 사상의지적으로뿐아니라 도덕의리적인 통일단결로 더욱 승화되게 된다.

수령, 당, 군대와 인민이 철통같이 뭉쳐 투쟁하는 사회정치적생명체는 력사의 그 어떤 도전과 시련을 이겨내고 승승장구하는 영생하는 사회정치적집단으로 되게 된다.

수령의 옳바른 령도에 의하여 또한 사람들이 혁명적신념과 의리를 지닌 참다운 혁명가로 자라나게 된다.

사회정치적생명의 영생의 담당자는 어디까지나 집단의 한 성원인 개별적사람들이며 사람의 활동에서 결정적역할을 하는것은 사상의식이다. 그러므로 개별적사람들이 사상정신적으로 어떻게 준비되는가 하는데 따라 집단의 발전을 위한 길에서 불굴의 혁명정신을 발휘할수도 있고 그렇지 못할수도 있다.

혁명하는 사람이 지니고 발휘하는 숭고한 혁명정신은 다름아닌 혁명적신념과 의리의 발현이다. 자기 위업의 정당성과 그 승리에 대한 굳은 확신과 수령과 동지들의 믿음과 사랑에 혁명적의리로 보답하려는 고상한 품성이 없이는 수령결사옹위정신, 자력갱생의 혁명정신, 혁명적락관주의정신, 견결한 계급투쟁정신, 혁명적동지애가 나올수 없으며 결국에는 영생하는 삶도 누릴수 없다.

혁명전사들이 발휘하는 백절불굴의 혁명정신과 고결한 품모의 근본바탕인 혁명적신념과 의리는 수령의 세심한 지도와 보살핌속에 지니게 된다.

수령은 천리혜안의 예지와 뛰어난 통찰력으로 시대와 혁명발전의 요구를 과학적으로 반영한 혁명사상을 창시하는 한편 사람들을 의식화, 조직화하기 위하여 당을 비롯한 혁명조직들을 내오고 그 강화발전을 현명하게 령도한다.

혁명하는 사람들은 수령에 의하여 창건된 당을 비롯한 혁명조직의 한 성원이 되어 자신을 정치사상적으로, 조직적으로 수양하고 단련해나가는 과정에 수령의 혁명사상의 과학성과 정당성을 자기의 뼈와 살로 만들게 된다. 뿐만아니라 혁명투쟁에 적극 참가하여 수령의 사상과 의도를 실현해나가는 실천투쟁속에서 인민대중의 자주위업, 사회주의위업의 진리성과 그 승리의 필연성을 더욱 굳게 확신하게 된다.

특히 혁명하는 사람들은 비범한 사상리론적예지와 탁월한 령도술로 복잡다단하고 준엄한 혁명의 길을 앞장에서 헤쳐나가는 수령의 위인상을 목격하면서 사회주의위업은 수령의 위업이며 수령이 있는 한 시련과 난관은 일시적이며 최후승리는 반드시 온다는 투철한 혁명적신념을 간직하게 된다. 이와 함께 고매한 인민적품모와 덕성을 천품으로 지니고 혁명전사들에게 육친적사랑과 배려를 거듭거듭 돌려주는 수령을 인생의 참다운 아버지로, 스승으로 모시고 수령의 사상과 령도에 끝까지 충실하는것을 어길수 없는 전사의 도덕적의리로 간직하게 된다.

이처럼 혁명하는 사람들은 수령의 세심한 지도와 보살핌속에 혁명적신념과 의리를 깊이 간직한 참다운 혁명가로 자라나게 되며 자기 수령, 자기 령도자를 혁명적신념과 의리로 받들어나가는 혁명가들의 육체적생명은 비록 끝나도 사회정치적생명은 영생하게 된다.

승리와 영광으로 빛나는 조선혁명의 년대기우에는 당과 수령, 조국과 인민을 위하여 자기의 모든것을 다 바쳐 싸운 수많은 혁명전사들의 고귀한 삶의 자욱이 력력히 어려있다.

자기 수령, 자기 령도자의 사상과 위업을 절대불변의 진리로 간주하고 당과 수령, 조국과 인민의 기대와 믿음에 보답하기 위하여 모든것을 다 바쳐 싸운 혁명선배들의 영생하는 삶을 통하여 우리 군대와 인민은 수령의 품을 떠난 혁명전사의 값높은 삶, 영생하는 삶에 대하여 생각할수 없다는것을 다시금 깊이 새겨안고있다.

모든 일군들과 당원들, 근로자들은 수령의 품에서만 영생하는 삶을 누릴수 있다는 인생의 참된 진리를 심장깊이 간직하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따라 주체혁명위업의 최후승리를 향하여 힘차게 싸워나가야 할것이다.